

창 17:5-15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한 어떤 분이 자녀 둘이 있는데, 둘 다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 논리는 이겁니다. '아이가 성장해 자기 종교를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게, 아이 인권을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에게 성경뿐 아니라, 다른 종교 서적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메이커 차 고르듯, 그렇게 자기 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선택하라' 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 17:5-15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나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기도)

고대 근동에서 언약 체결할 때, 약한 영주가 강한 왕에게 만약, “그렇시다. 그런데 조건은 내가 정할테니, 당신은 그냥 따라 오시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언약 식장에 찢겨진 짐승꼬리가 되고 말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입맛대로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 많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많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믿고 싶은대로 믿고,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되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는 분들 말을 잘 들어보면, 성경의 하나님,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데, 당신 백성들과 언약 맺는 과정에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로 어떤 왕과 언약 맺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입니다. 왕이 제시한 조건대로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누리든가, 아님 언약을 물리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이 오늘도 면접관처럼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쓸모있나 없나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쓸모있다 없다 어찌 저울질되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당신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 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이 제안한 언약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모든 언약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게 7,8 절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것이다.” 관계맺는 게 전제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 제안에 놀라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면접관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신으로 뽑을지 말지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없는 거니까.” 아이가 손을 대면 산이 안 보이니까, 없다는 논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착하게 살고 사람들도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걸”로 압니다.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 몫인데도 말입니다.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내세울만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부자와 잘난 사람들보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세상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더 잘 받아 들여지는 게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쳐 보셨습니까? ‘나같은 사람도 용서될 수 있나?’ 그런 질문 던져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는 분은,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하신 겁니다.

아브람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했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언약 밖의 자식 이스마엘을 놓고 13 년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자기 실패를 돌아볼 수 있는 세월입니다. 13 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 아브람이 충분히 깨닫고 느낄만한 세월이 지난 겁니다. 위대한 왕을 실망시킨 자기를 다시 찾아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 아브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실수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언약 맺는 하나님 은혜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준비가 된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싱글처럼 사는 사람 없습니다. ‘결혼하지만 내가 누구 만나든, 내 수입으로 뭘 사든 내 하고 싶은대로 한다.’ 그러고도 결혼관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맺는 것도 같습니다. 아브람과 사래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5 절 아브람은 아브라함, 15 절 사래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고대근동에서 언약맺을 때, 강한 왕이 약한 영주에게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새 이름이 붙릴 때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에 복종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 끝의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인격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가장 고통스런 방식으로 전 삶을 꿰뚫는 믿음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코를 뚫거나 이슬람들이 라마단에 하는 무슨 고행이 아닙니다. 할례는 창 15 장 짐승 몸을 반으로 찢은 상징같이, 언약을 깨면 받게될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언약이 생식기에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손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하갈에게서 드러난 실패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아브라함 혼자만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직 할례받는 뜻도 모르는 아이까지 할례받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자기 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자손이 언약백성의 한사람이란 징표를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 것이고, 그분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만 받으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받아 언약의 징표가 있지만, 결국 언약백성중 하나가 아닙니다. 언약백성과 적대적 관계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게도 주어지지만, 언약은 이삭과 그 후손들과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러니까? 세례가 유아를 구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밖에 주어지지만, 반드시 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례도 할례처럼 어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또한,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예식이고, 그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그분에게서 끊어지는 결과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식과 식솔들을 할례할 때, 아브라함은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지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을 세례줄 때, 그들도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 즉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 우리 자녀에게도 약속된 성령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은 행 2:29 베드로도,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 받을 것이고 믿게될 걸로 소망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교회도 보내고 성경도 읽히고 기독교 윤리도 가르치고 그럴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러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곤, 자녀를 종교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텐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당연히’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길러도, 자녀들에게 ‘당연히’ 물려줄 거라곤 죄악된 본성과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시는 분이신 사실을, 언약 맺으실 때마다 일관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례 베풀 때,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 아이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유아세례를 통해 우리와 자녀들에게,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면 그분은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언약은 우리 인격이 아니라, 당신 인격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대로 미국에는 도덕이나 윤리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도덕교육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처럼 교과목으로 가르쳐 시험보지는 않아도, 도덕교육 프로그램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는, PREP 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덕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 조교였을 때, 그 프로그램을 평가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PREP 프로그램 가진 학교와 아닌 학교 사이에, 십대 임신률이나 표준화 시험 성적 등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PREP 프로그램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가치를 가르치느냐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약 위험하다는 걸 가르치는 데도 누구도 반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외 성관계나, 동성애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건 민감한 문제라 건드리지 말라는 게 지도교수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맥도널 더글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잉에 합병됐지만 아직 한국에 F-15K 란 전투기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당시 딕 게파트란 상원의원이 한국에 가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필요하니까 전투기 사는 걸로 결정했지만, 그런 일을 당연히 여기고 아무 문제의식도 안 갖는 게 미국 현실입니다. 수많은 총기사고로 미주리주는 학교경비원도 총을 차면서, 총기 규제할 엄두를 못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이 좋은 걸로 여기지만, 그게 자기 삶을 간섭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도덕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제시하는 도덕은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전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까? 학교가 어떤 줄 아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전폭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재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 형상대로 빚어 우리가 당신처럼,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복종해 그 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니면 거부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녀를 유아세례 주지 않은 분은 한쪽이라도 세례받은 분은 다음주 세례식에 유아세례를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인되면, 입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교 전이라도 언약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 은혜언약 아래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고, 원하면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은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